이재명, 오늘 김경수 회동…비명계 연쇄 만남 '통합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임종석 이르면 다음주 회동
김동연·김두관도 일정 조율
'대선 경선 레이스 조기 점화' 해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기로 하는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통합 행보에 나선다.

민주당은 12일 이 대표와 김 전 지사 간 회동 일정을 공개하고,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각각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총리, 임 전 실장과는 이르면 다음 주께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회동을 앞둔 김 전 지사 등 3인은 비명계 중심인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꼽힌다.

이들은 최근 들어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일극체제' 타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을 주문해 왔다.

김 전 지사는 총선 당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김 전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생명력은 포용성, 다양성, 민주성"이라며 일극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도 SNS를 통해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그동안 숨죽였던 계파 간 대결 구도를 다시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 등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 사저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각각 대선 패배 책임을 인정하는 등 화합의 분위기가 감지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중 내게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지난 11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지난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잠룡인 이 대표와 김 전 지사의 만남이 당의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또 다른 대선 후보군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잠룡들의 연쇄 회동으로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가 조기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

이달내 본회의 처리 전망…현안질의에 명씨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체회의 당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도 열기로 하고 명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이날 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양부남 "내란 세력, 구속 후 1천만원대 월급 수령"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1000만원대 월급을 수령한 것은 정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세전 기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319만원, 1354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조 청장은 지난달 구속기소 된 이후에도 현직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이다"면서 "조 청장은 지난 1월 23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식 전 청장도 12월과 1월 각각 1197만원, 310만원을 받았다는 게 양 의원의 분석이다.

양 의원은 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경찰 수뇌부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왕진 "'52시간 특례' 뺀 반도체법 처리해야"

조국혁신당 서왕진(비례·광주시당위원장) 국회의원은 12일 "다음 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 소위에서 논의될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논의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산자중기위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이끌었고,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SK하이닉스의 주52시간 근무 운영 사례를 들며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본질적 주52시간 특례 문제로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주52시간 특례를 빼고 반도체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강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 재생에너지 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국회 상설기후특위 구성도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광주시당 "극우, 5·18 폄훼시 무관용"

광주서 15일 내란 옹호 집회 예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5·18을 폄훼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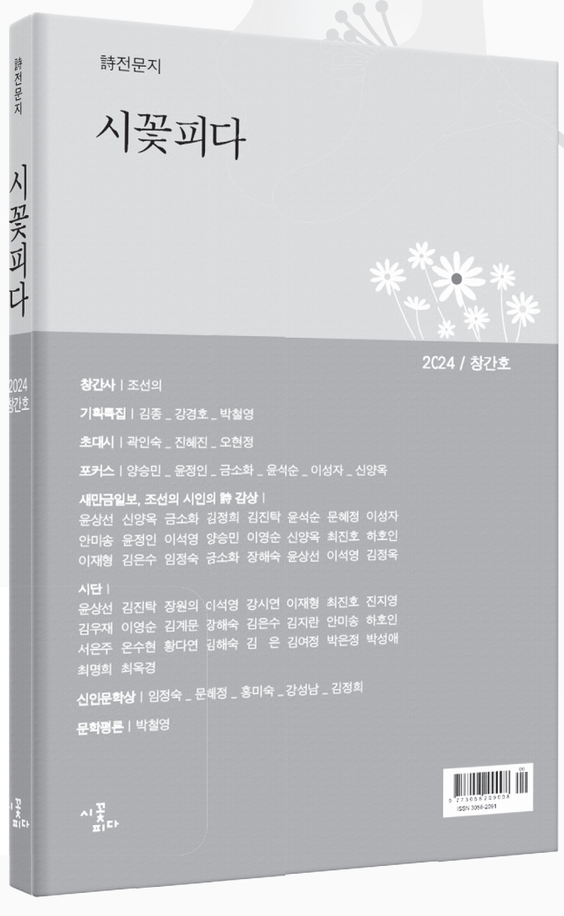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헌·위법한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내란을 선동해 온 극우주의자들이 오는 15일 민주주의 심장 광주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민주주의와 5·18 광주 정신을 훼손하려는 극우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광주와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또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전한길씨는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두둔하면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되면 안 된다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한국사 강사 전씨는 진정 이 시대의 난신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은 진정 누구인가. 극우주의자들과 보수단체는 답하기 바란다"며 "허위 주장과 거짓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비합리와 몰상식의 사회로 유도하는 자들에게 계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시당은 또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며 "민주주의 성지 광주를 능욕하는 이들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